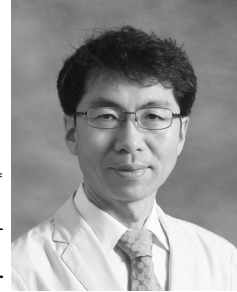


2015년 세계경제전망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jung@kiep.go.kr

1. 2015년 세계경제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유가하락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놓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기회요인 혹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기업경영 나아가 국가경영에 매우 중요하다.

2015년 세계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2014년 세계경제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주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였다. 유럽과 일본경제의 부진이 주요 원인이었다. 미국경제는 이와 달리 호조세로 전환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중국과 브라질, 러

* 본 원고는 정성춘 외(2014)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히토쓰바시대학 경제학 박사
- 최근연구: 2015년 세계경제전망(2014) 등

시아 등 거대신흥국 경제의 성장세도 주춤하였다. 이들 거대신흥국 경제도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늦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2014년 세계경제는 약 3.1% 전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세계경제는 전년에 비해 약간 높은 3.5% 전후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이 세계경제 성장세를 주도하는 성장패턴이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는 전년의 약 2.1%보다 높은 2.7% 전후의 성장세가 전망된다. 미국경제가 2분기 이후 강력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3.0%를 넘는 높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미국경제에는 아직도 불확실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성장률을 약간 낮춰 전망하였다. 유럽 및 일본경제의 지지부진한 회복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성장률은 약 0.9%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약 7.0%, 브라질은 0.9%, 러시아는 0.0%의 성장세가 전망된다. 다만 이들 신흥국에 대해서는 하방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세는 러시아나 브라질과 같은 자원 의존형 신흥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들 국가의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국경제 전망

미국경제는 2014년 2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분기와 3분기의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넘는 4.6%(연율)와 5.0%를 기록하였다. 2분기의 높은 성장률이 1분기에 -2.1% 성장한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3분기에도 5.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미국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월 20만개를 넘는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09년 10월 10% 수준에서 '14년 11월 5.8%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의 개선이 소비개선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주택판매도 '14년 3월 이후 상승세에 있고 주택가격지수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주택시장도 개선되고 있다.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도 소비회복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회복으로 산업 활동도 회복되고 있는데 '13년 말 이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ISM 지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와 생산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2015년 미국경제는 2.7% 수준의 성장(기준시나리오: Baseline)이 전망된다.

다만, 미국경제에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 요인이 있다. 첫째는 유가하락이다. 유가하락은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득효과에 의한 소비증가를 유발한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유가하락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사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구나 유가하락이 노동소득의 증가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기업이윤을 증가시키는데 그칠 경우 중기적으로 충분한 성장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유가하락이 미국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둘째는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따른 경기위축 리스크이다. '14년 이후 연준에 의한 통화공급량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의 경기회복이 팽창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통화공급의 급속한 감소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산유국의 순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산유국 오일달러에 의한 미국 국채매입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미국 국채의 수익률 곡선을 상방으로 이동(=금리상승, 국채가격하락)시켜 경기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겹치게 되면 추가적인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 유럽 및 일본경제 전망

유럽과 일본경제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2015년 유럽과 일본은 모두 1% 미만의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로존의 2014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 하락하였다. 유가하락에 따라 에너지 관련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물가 하락세는 유럽경제에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럽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경우 ECB는 보다 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예: 연간 5,000억에서 1조 유로 규모의 국채매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완화정책이 효과를 거두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유럽경제가 아직도 디레버리징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금융시장의 분절화로 인하여 돈을 풀다 하여도 이 돈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으로 흘러들어가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가하락은 유로화 약세를 유발하고 가계소득의 개선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실물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베정부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4년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외로 컸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 인상을 2017년 이후로 연기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아베정부의 양적완화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완화적 정책이 성장세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있다. 사실 일본경제의 문제는 돈의 부족에 있지 않다. 가계가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은 통화량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의 변화, 즉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요인이 있고 이것이 장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법 없이 통화량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가, 금리, 환율 등의 금융변수의 개선이 임금, 소비, 고용, 생산, 수출 등 실물변수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국 및 신흥국경제 전망

2014년 중국경제는 소비판매 및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가 하락하면서 7.5%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7.4%, 2분기 7.5%, 3분기 7.3%를 보였는데 이는 2013년의 7.7%에 비해 낮은 성장세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성장을 주도해 온 고정자산투자가 '09년 30.5%에서 '13년 19.6%, '14년(1-11월) 15.8%로 급격히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고정자산투자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개발투자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중국경제는 7.0%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기반이 강화되면서 과잉생산능력 억제와 신규채무증가 억제는 구조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는 1,0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또한 경제규모 자체가 커지는 Base Effect로 인하여 1%p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12년 164만개에서 '13년 170만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중국정부는 2015년에 7.0%의 성장목표를 설정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니부양책을 시행하고 특정산업(예: 철도, 민생, 환경-에너지, 제조업 고도화) 육성을 위한 미시적인 산업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하락은 중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본다. 중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은 가격경쟁력과 수익성 개선으로 중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신흥국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된 국제여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자원가격의 하향안정화이고 둘째는 글로벌 유동성의 양적 및 질적 흐름의 변화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브라질 등 자원의존형 경제성장모델을 가지고 있는 신흥국은 유가를 비롯한 자원가격의 하락으로 2015년에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경제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인상이 가세하여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이들 신흥국이 받을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5. 맺음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의 세계경제여건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의 입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요인으로는 주변국 통화의 환율변화일 것이다. 특히 엔화와 위안화의 환율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변국 통화의 환율변화는 서울을 방문하는 주변국 관광객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베총리는 총선에서의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양적완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엔화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유가가 하락하면서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개선될 것이고 따라서 양적완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엔화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가하락으로 신흥국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엔화강세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위안화는 아직 환율이 완전히 자유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화 대비 환율의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일본인 관광객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의 서울방문을 유도하고 이들 중국인 관광객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광객이 계속 서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리수준의 상승 가능성도 서울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리는 효과를 가진다. 그럴 경우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리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 투자와 같은 실물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비하여 그 영향과 대책을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정성춘 외, “2015년 세계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11월